

프론테오코리아·법무법인 율촌 '기업 내부조사 현황 및 대응 전략 세미나' 성료

- 기업 법무·컴플라이언스팀, 로펌 변호사 등 내부조사 관계자 80여명 참석
- 인공지능(AI) 활용한 효율적인 소송 대응 방안 공유



▲프론테오코리아가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지난 26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기업 내부조사 현황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.

[2019년 4월 29일] 인공지능(AI) 기반 리걸테크 전문기업 프론테오코리아(FRONTEO Korea, www.frontekorea.com)가 법무법인 율촌(대표변호사 윤용섭)과 공동으로 지난 26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'기업 내부조사 현황 및 대응 전략'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.

컴플라이언스 담당자, 감사인, 준법경영인, 사내변호사, 로펌 변호사, 법무관계자 등 기업 내부조사 관계자 80여명이 행사에 참석해 최신 내부조사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. 세미나는 ▲형사 절차와 디지털 포렌식(임황순 율촌 변호사) ▲내부조사를 통한 지적 재산 관련 분쟁의 사전 대응(김명훈 율촌 변리사) ▲리걸테크를 이용한 효율적인 소송 대응(정성우 프론테오코리아 팀장) 총 3개 세션으로 마련됐다.

임황순 율촌 변호사는 형사 절차 각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소개했다. 김명훈 변리사는 정부 정책, 최근 개정된 관련법 등 내부조사에 대한 이슈와 기업 대응 방안을

제시했다. 정성우 프론테오코리아 팀장은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 실제 사례와 효율적인 소송 대응 전략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.

프론테오코리아 관계자는 “이번 행사는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나누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. 앞으로도 프론테오는 AI 기반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다양한 법률 사례와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내부 정보 유출 감지 및 지적 재산 보호를 위한 소송 대응 지원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#

[프론테오]

프론테오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엔진 키빗(KIBIT)을 바탕으로 이디스커버리(e-Discovery, 전자증거개시) 등 법률 분야 관련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다. 한국을 포함 전 세계 6개국 12개 오피스를 운영 중이며, 126개 특허를 보유한 기술력으로 현재까지 9300건 이상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.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,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.